

<동정 자료>

김현미 장관 ‘괴산댐 수위 상승 주민피해 없도록 철저 대비’ 한강홍수통제소 댐·보 운영 점검…유관기관 협조·주민홍보 강조
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6일(일) 한강 상류 괴산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우려되는 주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한강홍수통제소 홍수통제상황실을 방문해 기상 및 수위 상황과 한강수계의 댐·보 운영현황을 중점 점검했다.
- 괴산수력발전댐의 수위는 금일 13시 10분 현재 계획홍수위인 해발 수위 136.93m를 초과했다. 한국수력원자력은 13시 50분 재난관리 수준을 ‘주의’ 단계에서 ‘경계’ 단계로 격상시켰고, 이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.
- 한강홍수통제소는 괴산댐의 월류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 14:30에 괴산댐 하류, 남한강, 한강(팔당 하류)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.
- 하천 내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알리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, 도로, 교량 통제 등 유관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.
- * 괴산댐은 콘크리트댐으로 월류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
- 국토교통부는 괴산댐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김현미 장관과 1차관이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상황 관리를 하고 있으며, 하천·도로·철도·항공반 등으로 구성된 홍수대책상황반을 구성하여 24시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.

- 이날 점검에서 김 장관은, “한국수력원자력,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금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위험 지역에 대피 경고방송 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,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”고 지시했다. 또한, 홍수 위험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.

- 또한, “괴산댐 비상상황뿐 아니라 금일 충청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,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면서 “기상 전망은 비관적이지 않으나,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홍수 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”함을 강조했다.

2017. 7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